

KF-16 국산화 1호기 출하

지난 6월 30일에 柳武成 삼성항공 대표를 비롯, 공군 항공사업단장, 1백여개 주요 협력업체 대표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최종 조립장인 경남 사천사업장내에서 KF-16 국산화 1호기 출하 기념식이 있었다.

이번에 생산된 KF-16기는 직도입, 조립생산을 거쳐 이미 공군에 배치된 기존 전투기와 달리 KF-16 완제품 35만여개 부품중 30여만개를 1백여개 협력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부품을 삼성항공이 최종 조립, 시험평가한 전투기로 오는 99년까지 72대 생산될 전투기중 1호기이다. 이 전투기 생산을 위해 삼성항공과 1백여개 협력업체는 지난 94년 5월부터 자재도입, 부품제작등 생산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삼성항공을 비롯, 대우중공업, 대한항공등 3사가 동체조립 및 최종조립, 시험비행 등 총 3년3개월간에 걸쳐 항공 전문인력 4천여명 투입과 43만대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습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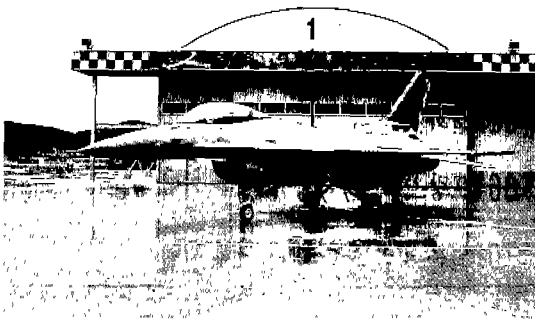
지난 92년 한국전투기(KFP)사업을 본격 착수한 지 5년만에 생산기술 및 관리기술이 선진기술 대비 90%, 시험평가 기술이 60% 수준에 달하는 등 각 부분별 전문화된 체제하에 소재, 부품, 조립, 설계등

종합시스템 사업인 항공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동안 확보된 전투기 생산기술은 앞으로 본격 추진될 고등훈련기 사업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민수용 항공기 개발사업, 산업용 엔진개발 등의 산업전반에 걸쳐 그 기술과급 효과가 기대된다.

80년대 중반, 당시 직도입보다 10억불의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형 전투기사업과 국내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역량 증대를 위해 국내 기술도입 생산기로 한 결정이 그동안 항공업체가 구축해온 F-5 제공호, 500MD헬기사업 이후의 항공산업 공백을 메꾸는 동시에 생산시설투자 2조 6천억원과 1만명의 전문인력들을 육성, 고등훈련기 사업 등 향후 새로운 항공사업에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결실로 나타났다.

사업경과

- 84. 11 국내업체 한국 전투기 사업 참여 요청(공군)
- 86. 10 KFP 사업 주계약업체 삼성항공 선정
- 89. 12 KFP 기종 1차 결정(MD사 F/A-18)
- 90. 10 KFP 사업 재검토 : 사업비용 증가 및 가용예산 부족
- 91. 3 KFP 기종 최종 확정(GD사 F-16 C/D)
- 91. 5 한/미 정부간 KFP 양해각서(MOU)합의
- 91. 10 한/미 정부간 LOA 합의
(한/미 업체간 기술도입계약(LATT)/구매계약(PA)체결)
- 91. 11 1차 납품계약 체결(항공기 36대, 치공구, 기술용역)
- 93. 2 GDFW 매각에 따른 승계계약 체결(LFWC로 회사명 변경)
- 93. 8 2차 납품계약 체결(항공기 72대)
- 94. 6 사천공장 PHASE II 기계조립 착수
- 95. 11 KF16기 조립생산, 납품 시작
- 97. 6 KF16기 국산화 1호 첫 생산



KF-16 국산화 1호기가 출하되었다

BAe, JSF 설계에서 록히드와 손잡기로

파리 에어쇼 기간중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사가 동사의 JSF(Joint Strike Fighter) 설계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BAe사는 록히드마틴-노드롭그라만 팀에 동참함으로써 2,500억 달러 상당의 JSF 사업에서 보잉과 경쟁하게 되었다. JSF는 미 공군, 해군, 해병대와 영국 해군에서 사용될 것인데, 각각 공군의 F-16, 해군의 F-18 호넷, 그리고 미 해병대와 영국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AV-8 해리어기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BAe사는 해리어 점프 잷(Harrier jump jet)을 생산하기 위해 맥도넬더글라스와 손잡은 바 있으며,

현재 해리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직 이착륙 기술에서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고 있는 업체이다. BAe사는 최초 JSF 설계 경쟁에서 맥도넬더글라스사와 손을 잡았으나 탈락한 후 보잉과 록히드 양사 모두 BAe사에 제휴 의사를 내비치고 있던 중이었다.

국방 산업 분석가에 따르면 BAe의 합류로 인해 록히드마틴사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설계 경쟁에서의 승리자가 3,000대가 넘는 JSF의 생산 계약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보잉과 록히드마틴 양 팀은 국방부가 검토할 원형기 제작 계약을 따 냈는데, 국방부는 2001년에 양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록히드마틴, 노드롭그라만 인수

미국 최대의 방위 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노드롭 그루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록히드 마틴은 3일 노드롭 그루만을 1백16억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 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연간 매출액 3백70억달러에 종업원이 23만명을 거느리는 미국 최대의 방산회사가 탄생했다.

록히드 마틴은 F16전투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노드롭 그루만은 B-2스텔스 폭격기와 MX미사일을 만들어내는 업체로 미국 6위의 방위산업 업체에 올라 있다. 이번 인수로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이 무기생산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판매망을 통합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노만 어거스틴 록히드 마틴 회장은 "세계화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좀더 효율적인 생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합병을 통해 21세기 세계시장의 경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켄트 크레사 노드롭사 회장도 이번 합병으로 "미래를 향해 보다 강력하게 나갈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이미 공동으로 F22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조기 경보시스템 사업에도 협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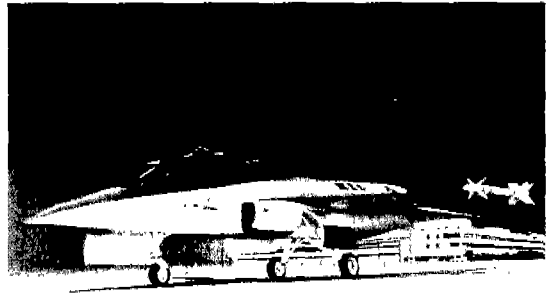
이번 인수로 노드롭 그루만의 주주들은 주당 1.1923의 록히드 마틴 주식을 받게 된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냉전 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방위기술을 민수로 이전하면서 생존을 모색하는가 하면, 다른 업체들은 합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 회사의 회장은 오거스틴이 맡으며 크레샤는 부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KTX-2 사업 추진키로

정부는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개발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7월3일 고건 총리 주재로 제1차 항공 우주산업 개발 정책심의회를 열고,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1조 6천여억원의 투자비용은 정부가70%(국방부50%, 재정경제원20%)를 부담하고 업체가 30%(이중 13%는 미국 록히드마틴사 부담) 분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8년간 체계개발, 시험비행을 거

쳐 2005년말 공군에 시제기가 인도되고 2010년까지는 공군이 요청한 94기가 대당 2백억원에 납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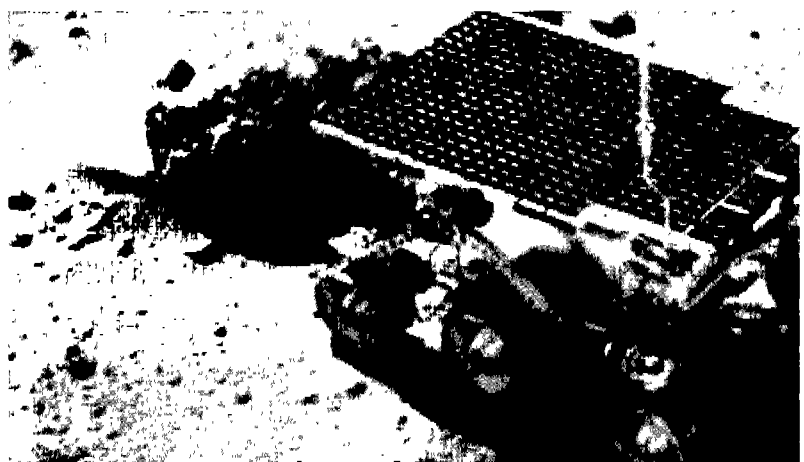
미 패스파인더 화성착륙 성공

미국의 무인 화성탐사선 패스파인더(Pathfinder)호가 7개월간의 우주대장정끝에 지난 7월 4일화성착륙에 성공하였다. 76년 9월 바이킹호의 화성착륙에 이은 제2단계 탐사로 21년만이다. 패스파인더호는 이동 탐사로봇 소저너를 싣고 있으며 주 임무는 화성의 지질, 기상분석과 생명체의 존재여부를 연구하게 된다.

NASA의 새로운 우주 탐사 전략에 따라 개발비는 1억 5천만 달러로 발사와 관제비를 포함하면 바이킹의 15분의1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패스파인더호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부품이 과감하게 외부 제작되었고 안전착륙에 에어백이 활용되는등 기존의 탐사전략을 수정한 첫 작품이다. 패스파인더는 본격 개

발과 제작에 3년이 소요되었고 지난해 12월5일 케이프 캐너버럴 기지에서 '델타2' 로켓에 실려 화성으로 발사 되었다. 이 로켓은 지난 7년간 49차례의 발사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로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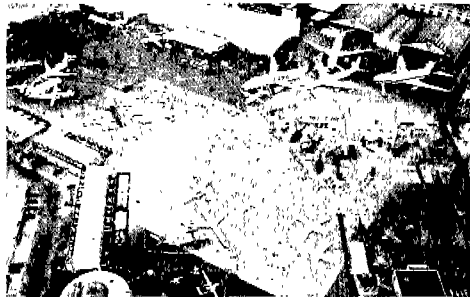
한편 이동탐사로봇 소저너는 JPL특수 입체 카메라, 엑스선 분광기(APXS)와 표면 입체 영상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앞으로 15분단위로 화성의 모습과 탐사진행상황을 찍어 지구로 전송한다. 지상관제소는 영상을 입체적으로 전환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소저너의 이동을 지시하게 된다.



파리에어쇼 성황리에 끝나

세계 최대 규모의 파리 에어쇼가 지난 6월 14일 프랑스 르부르제 공항에서 개막한 이래 8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22일 성황리에 마쳤다. 총 참가국 수 43개국, 참가 항공기 대수 220대, 총 전시업체가 1,850업체인 이번 행사는 항공기 곡예비행과 신예 전투기의 성능 시험을 선 보였다.

한편 향후 항공기 산업을 주도하려는 각국 기업들의



최대 Business장이었던 이번 행사는 유로콥터사가 헬리콥터를 발주하였고, CASA는 동체 연장형 CN-235를 발주하는등 활발한 거래의 장을 이루었다. 또한 전세계 평균 12%이상 급신장을 이룬 15~90인승 커뮤터 지역 항공기 시장은 브라질의 엠브래어, 독일의 도니어, 스웨덴의 사브가 이들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였다.

한편 한국의 로스트웍스는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시 부스에 참가하였다.

미 보잉- MD 합병 승인. EU거부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7월 1일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의 합병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종업원 20만명에 연간매출 4백80억달러(약43조원)의 명실상부한 세계최대 항공기 제작회사가 됐으며,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판도는 점유율 65%의 보잉과 30%대의 에어버스(EC컨소시엄)의 2자 경쟁체제로 재편됐다.

한편, EU는 이 합병이 EU의 독점금지 기준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며 양사의 합병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EU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전문가위원회는 지난 4일 보잉과 맥도널의 합병계획은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사 에어버스를 죽이려는 특수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합병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세계항공기 시장 50% 점유를 목표로 유럽지역 국가들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는 “보잉과 맥도널드의 합병은

중대형 항공기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는 결과를 빚게 돼 시장의 자율경쟁체제를 상실하게 된다”며 그동안 심한 반발을 해왔다.

EU는 유럽시장에 들어오는 대형회사로서 합병을 하면서 EU의 결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엔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는 합병할 보잉-맥도널 더글러스사와 공동사업을 벌이는 유럽회사에 대해 별단의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사는 유럽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한편으로 보잉사는 유럽인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회사 또한 EU측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EU측이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보잉사가 델타, 컨티넨탈, 아메리칸 항공사 등과 체결한 향후 20년간 항공기 독점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문제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3일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합병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